사단법인 전국기자협회

전남도민일보

(주) 하랑 A+
전국최고 분양대행 선두주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53, 4층 T.062)673-2900

제 3842 호 대표전화 (062) 227-0000 jndomin.kr (음력 10월 03일)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확산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경 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매월 행정문서 실태조사와 직원 교육 지속 추진

보도자료 개선 공모 통해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확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행적으로 쓰이는 외래어와 어려운 행정용어를 바로잡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정확한 공공언어 사용 확산에 앞장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015년부터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공문서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행정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와 잘못된 표현을 개선하는 등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문화 정착에 힘써 왔다.

올해도 보도자료와 공고문 등 매월 10건의 행정문서를 대상으로 문장 구조, 어휘 사용, 행정용어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고 잘못된 표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공공언어 개선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네모소식(공공언어 개선 알림창)'을 제작해 잘못 사용하기 쉬운 행정용어와 올바른 표현을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광주청사 무등홀에서 시·자치구 및 관계기관 직원 등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언어 바로쓰기 교육'을 실시했다. '보도자료 작성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공공언어의 개념과 외래어 표기법 등을 다루며 공직자들의 공공언어 사용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상 업무 속 언어생활을 되돌아보고, 시민과의 소통 창구인 보도자료를 더 쉽고 친숙하게 다듬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대상의 보도자료 개선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우리말과 순화어로 쓴 보도자료'를 주제로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기존의 복잡한 보도자료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거나 누구나 이해하기 편한 새로운 보도자료를 작성해 응모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이 함께 추진하는 '2026년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공문서 실태조사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무심코 쓰이던 복잡한 행정용어를 바른 우리말로 고쳐 시민들이 정책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참가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다듬은 보도자료를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전자우편(korjnu@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보도자료는 우리말과 순화어 사용, 공공언어 적합성, 문장의 명확성, 행정용어의 적절성, 표현의 일관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외래어와 행정용어를 되돌아보고, 시민 중심의 정확하고 투명한 소통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질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현대차그룹–삼성, '원팀'으로 미래 첨단 산업 선점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양 그룹은 9일 삼성전자 서천연수원에서 열린 'HMG Appreciation Day'를 통해 미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양 그룹 주요 경영진과 임원 등 177명이 참석했다.

양사는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배터리 등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로봇과 에너지 등 미래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사에서는 양사의 협력 역사와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과 경기필하모닉·첼리스트 한재민의 협연 공연이 진행됐다.

삼성은 차량용 반도체와 전고체 배터리, 카메라 모듈,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을 전시했다. 현대차그룹과 삼성의 협력은 창업 세대부터 이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며, 2001년 양 그룹 총수의 만남을 계기로 사업 협력이 본격화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0년 두 차례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모빌리티 협력을 논의했다.

양사는 2023년 현대차와 삼성SDI의 첫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의 성과를 거뒀다. 양 그룹은 자동차와 반도체·배터리 등 각자의 기술력을 결합해 미래 모빌리티는 물론 AI·로봇을 활용한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양 그룹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삼성은 현대차그룹을 국내 주요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대규모 초청 행사의 주인공으로 선정하며 양사 간 각별한 협력 관계를 보여줬다.

양 그룹은 각자의 핵심 기술과 사업 역량을 공유하고 협력 분야를 넓혀 글로벌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앞으로도 현대차그룹과 삼성은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피지컬 AI 등 차세대 산업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가영 기자

